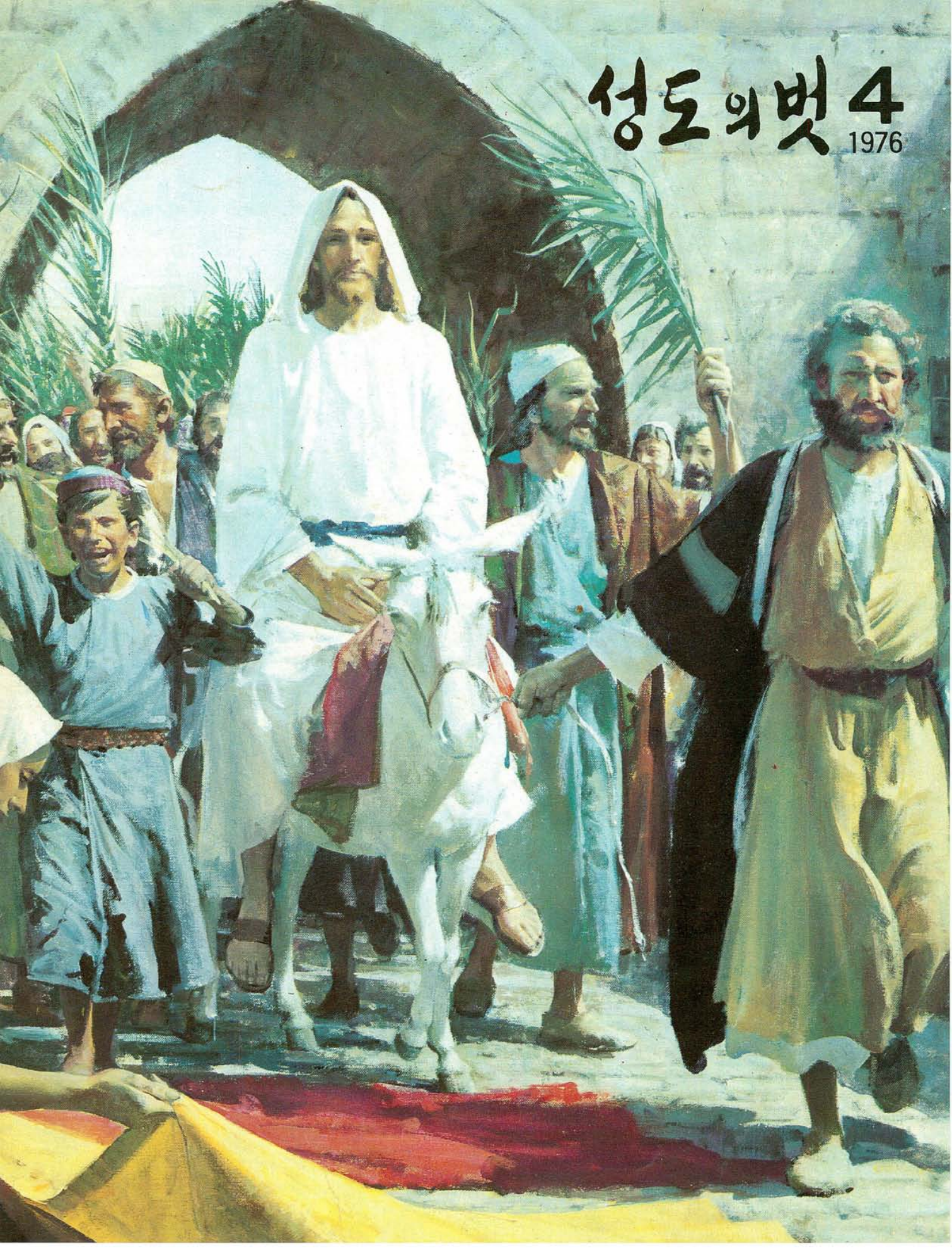


# 성도의 빛 4

1976





# 월 간 성도의 벗

제12권 제4호 1976년 4월호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엔 엘튼 태너  
메리온 지 름니

##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핑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6년 4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9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 순서

###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 1 인류를 위한 주님의 계획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4 "그 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반 제이 배렛
- 9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데이비드 에이치 얀 이세
- 21 자기 신뢰 보이드 케이 팩커
- 26 어름호수를 깨고 받은 침례 아이나 노스트 란더
- 26 5분 정도라면 언제나 낼 수 있습니다 레카 올슨
- 30 선교부장단 메시지 한 인상
- 31 교회 및 지역소식

### 청소년 페이지

- 12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엘레인 에스 맥케이
- 24 묻기가 두렵습니까? 린다 아치발드
- 27 그대가 기꺼이 행할때 폴 에이치 던

### 어린이 페이지

- 13 어린이들의 기도
- 14 친구가 친구에게 휴 비 브라운
- 16 사하라의 모래 폭풍 모린 던
- 19 아브라함의 희생
- 20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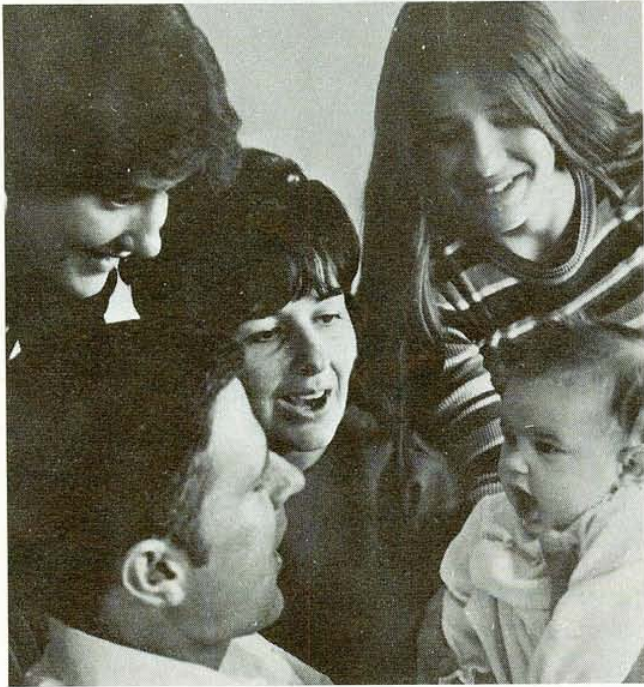
© 1976 재단법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장기 구독료는 1200원 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입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입니다. 구 주소와 신 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 1년 장기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 이며 선박은 어느곳이나 3불입니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대관장단 메시지

# 인류를 위한 주님의 계획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유아기에서 신의 경지에 까지 이르도록 하는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이란 항상 순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따라 크게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 봅시다. 모세는 주님의 예언자로 있는 동안 많은 시현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창세와 그 이전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같았습니다. “나는 주 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 모든

지혜와 분별로써 태초부터 네 눈으로 본 모든 예지들을 다스림이라...”(아브라함 3 : 19, 21)

주님께서서는 무수한 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자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 3 : 24-25)

“여러 하나님이 바라보시매 드디어 명하신 것들이 순종하더라.”(아브라함 4 : 18)

그런 다음 계속해서 고래와 물고기와 생물과 날개달린 새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하나님이 보시매 저들이 순종하려 하는지라 여러 하나님의 계획이 좋았더라.”(아브라함 4 : 21)

생물로 물을 채우시고 날개달린 새들로 공중을 채우시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여 저들로 새끼를 낳아 번성하게 하고...”(아브라함 4 : 22)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와서 생물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으며, “...여러 하나님이 보시니 그들이 순종하더라.”(아브라함 4 : 25)

지구가 창조되자 그들은 권고를 받아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 인간을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 하나님이 내려가 인간을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브라함 4 : 26-27)

이렇게 계획이 끝났고, 여러분과 나와 수많은 형제와 자매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인류의 성장과 발전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로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 : 16, 18-20)

계획이 수립되었고, 프로그램이 착수되었으며, 세부 사항이 점점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이르자 다음과 같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저들로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며 땅을 충만케 하며 땅을 정복케 하며...”(아브라함 4 : 28)

이것은 뒤늦게 생각해 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창조가 있기 이전에 주의깊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던 그 날에 여러 하나님이 내려오사 하늘과 땅을 이루셨더라.

“여러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영을(이는 곧 인간의 영이라) 취하사 그 안에 집어 넣으시고 생명의 숨을 코로 불어 넣으시니 인간은 영의 결합체가 되더라.”(아브라함 5 : 4, 7)

다시 “...한 여인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 오시니,”(아브라함 5 : 16)

이것도 역시 거룩한 뜻으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기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가...여자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아브라함 5 : 17, 18)

여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의 배필을 지어 남자를 돕게 하자. 사람이 혼자 있음이 좋지 아니함이라...”(아브라함 5 : 14)

우리는 여러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했고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룬 일에는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 : 27-28)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모르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이라.”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면밀히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주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체는 서로 보충하여 완전하게 되도록 달리 창조되었으며, 이 둘의 결합에 의해서만 주님이 장막을 거두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무수한 영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게 하는 임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남녀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들의 육신이 그렇게 창조되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계속 끊임없이 잉태해 주게 됩니다.

여러 하나님은 창조의 사업을 마칠 때마다 그들에게 모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하나님은 그들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 계획을 보면서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을 이 세상에 데려와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가장 정상적이고도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떠한 세속적인 지혜나 거짓된 생각이 이러한 성스러운 계획에 개입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자녀가 이 세상에 오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현명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는 속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합당한 일들은 이미 오래 전에 끝이 났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자녀가 이 세상에 오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현명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을 지배하는 속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합당한 일들은 이미 오래 전에 끝이 났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마 19 : 4)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받았었습니다. “...사람이...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5-6)

주님께서서는 이로써 이혼과 가정의 파탄을 크게 경고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만이 자녀를 이 세상에 잉태시키는 근본이었습니다. 육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성행위를 주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성 경험은 자녀를 낳는 일에만 국한한다는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난잡한 성 관계를 허용하는 어떠한 조항도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의 합당한 질서를 안다면 이처럼 성스러운 프로그램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사탄의 계획에 근거를 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악이 창궐할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사는 성이란 원천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요 원천적으로 선한 것이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고난과 불편 속에서 여자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가므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땀을 흘려 가며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의 짐도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 3:16-19 참조) 여기에서 큰 축복이 옵니다.

경전에서 창조의 내용이 언급될 때는 거의 언제나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함께 사용됩니다. 모세는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창 5:1) 따라서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왕과 왕비와 같은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터무니 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2)

아담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볼이 나와 내 아내의 성이듯이 아담도 첫 가족의 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담에게 여자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녀를 이브라고 불렀는데 이는 여자가 "모든 산 자의 어미" (모세 4:26)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첫번째 여자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첫번째 조상입니다. 그들은 첫번째 아버지요 어머니였으며, 모든 인류는 이 두 분의 후손입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을 인봉자로 모시고 인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인 이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의식을 행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교성 131:2-3)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축복을 스스로 박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스스로 내버리는 여성도 많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책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남편의 역할에 관한 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그의 성스러운 계획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19-20)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비판하고 따지려 들까요? 왜 그들은 인생에서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최근 한 신문에 용감한 어느 부인이 기고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경전은 남성이 갖는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내와 자녀에게 인도자, 보호자, 양육자가 되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 3:16)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엡 5:23)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인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어서 이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말일성도 소녀와 여성, 소년과 남성 모두가 생명을 깊이 마셔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폭넓은 역할을 생활에서 실천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해진 계획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겠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폭넓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완전히 하도록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 주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과실을 프로그램의 부당성으로 돌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와 활동과 생활을 자제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무한하고 풍요한 축복을 상속받도록 합시다.

이 위대한 계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참으로 큼니다! 우리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된 앞날을 축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이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도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주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실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반 제이 배렛

**복**음 교리반 8월 공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  
에게 배운 40일간의 성역,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자  
들의 준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복음이 회  
복된 후 말일에 나타나신 구세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일의 출현은 그가 고대에 주신 다음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  
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  
14: 21, 23)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4세 난 한 소년에게 친히 나타나심으로써 복  
음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지  
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선전자가 되도록 백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년 예언자는 그가 본 첫번째 시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  
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  
면서 다른 한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  
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  
스서 2: 16-17)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 시현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 시현은 모  
든 세기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시  
현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이 시현은 수세기 동안 가르쳐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  
님을 육신을 갖지 않은 본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  
다.

“태양을 더듬게 하고, 맑은 바람을 불어 주며,  
별을 빛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영원히 사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며,  
단절없이 지속되며 다함없이 쓰시도다.”

(알렉산더 포프, 전능자에게 부치는 글,

“제1서” 271-274행)



포프는 알지 못하는 존재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나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 1:26-27 참조) 요셉 스미스는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구세주를 보았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직후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가진 대회에서 뉴엘 나이트 형제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시현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위대한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으며,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가 전능하신 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될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교회정사 1:85)

1831년 6월초에 가진 제4차 대회에서 라이만 와이트 형제는 영에 사로잡혀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정사 1:17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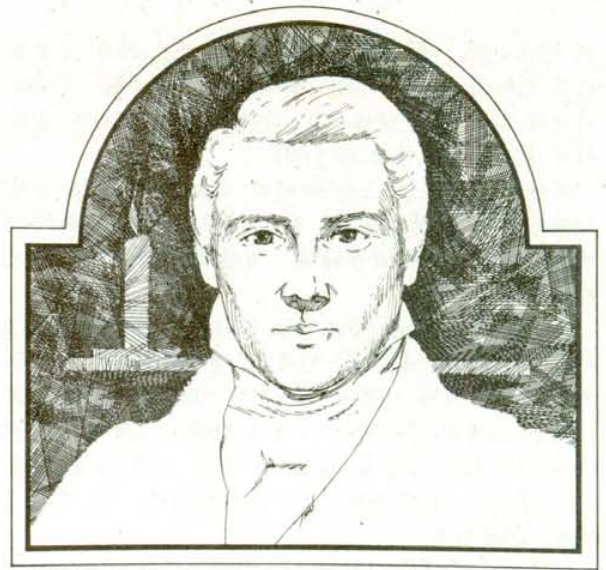
1831년 초여름 저녁 12살난 매리 엘리자베드 로린스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물문경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어 커틀랜드에 있는 예언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친구와 친척들이 와 있었는데, 예언자는 방에 들어 오면서 모임을 갖자고 제의하였습니다. 12살 난 소녀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마치고 요셉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얼어 붙은 듯이 꼼짝않고 앞쪽을 뚫어지게 바라다 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선반 위에 있던 촛불보다도 밝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엄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밤 이 자리에 어느 분이 계셨는지 아십니까?’ 스미스 가족 중 한 사람이 ‘주님의 천사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해리스가 예언자의 곁에 있었는데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예언자의 무릎을 열싸안고 ‘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마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틴 형제,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나타내 보이셨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세주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눈에 장막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매리 엘리자베드 로린스 라이트너, 미출판 원고, 2-4페이지)

1832년 2월, 요셉 스미스는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매리 엘리자베드 로린스 라이트너는 12살 때 예언자 요셉이 “주님의 천사”가 임재했다고 한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일기에 적었다.

존슨이라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드니 리그돈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개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들은 인간이 육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성도들의 영원한 집이란 뜻을 가진 “천국”은 하나 이상의 여러 왕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눈이 열리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위에 빛났더라.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보니,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또 영원토록 경배하더라.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19-24)

그때 그 방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필로더 블이라는 사람은 “나는 영광을 보았고 힘을 느꼈으나 시현은 보지 못하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청소년 인스탁터 27:303)

예언자 학교를 세우라는 계시를 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

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88 : 68)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 학교에서 “신앙 강좌”로 알려진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의 주요 내용은 위의 성구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인품과 영광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면 에녹이나 야벳의 동생이나 모세와 같이 그를 갈구하는 노력과 성실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을 수 있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권세도 얻게 된다.”(신앙 강좌, 2권, 엔 비 런던웰 편집, 23페이지)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 : 1)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신전 헌납식에서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셨다”(교회정사, 2 : 432)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헌납식 첫날 예언자의 보좌로 연단의 상단에 앉았던 프레데릭 지 윌리엄스 부대관장은 성의를 입으신 구세주께서 연단에 오셔서 신전의 헌납을 받아 주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보았다고 증거하였고 구세주의 옷과 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설교집 11 : 10)

커틀랜드 신전 헌납식이 있던 지 일주일 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올리버 카우드리, 심이사도 평의회 전원, 기타 몇몇 신권 역원과 함께 신전의 아랫방에서 성찬을 들었습니다. 성찬 집행을 마치고 요셉과 올리버는 방의 서쪽 편에 있는 연단으로 갔는데, 이 때 다른 형제와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장막이 내리쳐졌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엄숙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예로운 시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흉벽 위에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 : 2-4)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한복음 14 : 16, 21, 23)

“‘또 다른 보혜사란 누구입니까?’ 라고 요셉은 물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마지막 보혜사(영생에 대한 약속)를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니게 되며, 때때로 그분을 보게도 되며, 그가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 주고, 그 두 분이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시현이 그에게 열리며, 주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그에게 가르치게도 됩니다...’”(교회정사 3 : 381)

예언자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참조. 이 구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나심은 몸소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어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인간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생각은 낡은 종파적인 관념이요, 잘못된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3)

두 번째 보혜사. 혹은 영생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이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히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교회정사 1 : 283-4, 3 : 381, 5 : 530, 6 : 51 참조)

치과 의사로 영국에서 개종한 유태인, 알렉산더 비바우어 형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오래고 험한 인생의 경험담을 들려 주셨고,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고생을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런 희생을 치루어 얻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간증과 진리의 불빛이 희미해져 가는 그 아버지의 눈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난 구세주를 보았다. 손에 난 상처도 보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이 사업이 참되며,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 난 황야에서 늑대의 밤이 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유태 계보 및 역사지, 5 : 62)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교회 회원이 된 지 6개월이 된 22세 때 예언자의 아버지요, 축복사였던 요셉 스미스 일세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에서 그는 “야벳의 동생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토마스 시 롬니, 로렌조 스노우 전기, 테저넷 출판사, 1955년 1페이지) 야벳의 동생은 강한 신앙을 지녀 “...장막에 가려질 수 없었던지라, 저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는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니라.”(이더 3 : 20)

몇 년 후 스노우 대관장은 윌포드 우드럼 대관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전복을 입은 채로 솔트레이크 신전의 성스러운 제단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



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우드럽 대관장이 자신보다 오래 살아 교회의 중책을 자기가 맡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책임을 맡고자 갈구하지 않았으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인도와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다음 그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시현이 응답으로 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음성도 시현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여 방을 나왔습니다. 해의 왕국의 방을 지나 자기 방 쪽으로 향해 걸을 때 큰 영예로운 시현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녀인 엘리 영 폰드는 이 때의 아름다웠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날 그녀와 스노우 대관장이 솔트레이크 신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나와 해의 왕국의 방을 향해 큰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보다 조금 앞서서 걷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 네게 이야기해 줄 게 있단다. 우드럽 대관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에서 나에게 나타났단다. ...’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 오셔서 왼팔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셨지. 땅위에서 약 3피트 공중에서 제셨는데, 마치 금판 위에서 제신 것 같았어’

“할아버지께서는 구세주께서 얼마나 영예로운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너무 환하고 밝아 감히 쳐다 볼 수도 없는 그분의 손, 발, 외모, 아름다운 흰 옷 등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할아버지는 제게 한 걸음 다가 오시더니 오른 손 예언자 요셉은 커틀랜드 신전 헌납 때 ‘구세주께서 몇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셨다’고 기록하였다.



을 내 머리에 올려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네 할아버지가 정말로 신전에서 구세주를 보았고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네게 직접 말해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것이 네 할아버지의 간증이란단다.’” (테저렛 뉴스, 교회란, 1938년 4월 2일, 8페이지)

교회 초기에 개종한 알프렛 더글라스 영 형제는 1841년 9월 17일 아침 그의 형과 복음 원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은밀한 장소로 가라는 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형의 집 근처에 있는 숲에서 그는 “나를 따라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처음 내려온 곳으로 다시 올라갔으며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면전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가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광 보좌에 앉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나의 손에는 많은 밀단이 있었으며, 그 빛은 순백색이었습니다.

“내 왼편에는 제단이 있었으며 바로 내 앞에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단의 높이는 약 1미터 가량 되어 보였으며 앞에 있는 제단은 50센티 가량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손에 든 밀단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왼편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나와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에 놓은 헌물을 받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놓였던 가로대가 걸히고 내가 자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시더니 아버지 쪽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들 앞에서 그들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의 헌물은 헌납되었도다. 그 뜻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주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은 온갖 백성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모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네가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 데려 온 자들이라. 네가 제단에 놓은 헌물의 의미니라’” (알프렛 더글라스 영, “자서전적 일지” 1808-1842, 3-13페이지)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선교사 시절에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구세주의 혹심한 고통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셋세마베 동산에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보통 사람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구세주를 보았다. 나는 나무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나의 오른편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세 제자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이르고 나서 저쪽으로 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주님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이 나를 향한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온 마음은 그에게로 쏟렸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오직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이윽고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히 흔들며 깨우고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꾸짖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만민을 위하여 그의 영혼이 찢기우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한 시간도 그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였다.

“주님이 다시 방금 기도하던 곳으로 가 전과 같은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 세 제자가 다시 잠이 들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 깨워 훈계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 기도했다. 이러한 일이 세 번씩 반복되는 동안 나는 이미 주님의 모습 즉 얼굴과 체격과 동작을 익히 알게 되었다. 주님은 몇몇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유약하지 않고 흰찰한 키에 당당한 풍채를 지니신 분이였다. 그러나 옛날도 지금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린 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였다.

“장소는 그곳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의 일이었다. 구세주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나의 왼편에서 계셨다. 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는 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무 뒤에서 뛰쳐 나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의 무릎을 껴안았다. 그리고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허리를 굽혀 나를 일으켜 세워 안아 주던 그 친절하고 온유하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생생하고 현실과 같은 일이었다. 나는 그의 팔에 안겨 그의 체온을 느꼈다. 주님은 나를 안은 채 지극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할 일을 마쳤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함께 갈 수 있으나 너는 여기에 남아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마쳐야 한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꼭 붙든 채 나보다 키가 큰 그를 올려다 보면서 간곡히 애걸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당신께로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말에 미소를 지으시며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다. (올슨 에프 휘트니, 메모리 홀, 1930년, 82페이지).

메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세계 순방 중 사모아의 아피아에서 놀라운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멀리서 아름다운 흰 도시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풍성한 열매가 달린 나무와 금빛 찬란하게 우거진 숲과 활짝 핀 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하늘은 이 아름다운 자연의 색깔을 반사해 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나는 한 무리의 사람이 이 도시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희고 긴 옷을 입었으며, 흰 머리 장식을 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열 모습 밖에 볼

수 없었으나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외모에서 비치는 찬란한 빛은 참으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이 그분의 도시인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도시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안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읽은 듯이 그들 위에 떠오른 반원을 손으로 가리켜 주었는데, 그 반원 위에는 금으로 다음과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니, 참으로 다시 태어난 자니라!”(값진 경험, 클레어 미들미스 편, 메저렛 출판사, 1955년, 102페이지)

오늘날 세상에는 영예로운 구세주의 모습을 시현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표하지 못하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분은 원하시던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1974년 4월 대회 마지막 연설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 대관장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었던 조지 에프리차즈 장로가 꿈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꿈을 꾸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 나는 주님께서 주셨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서 나는 공중에서 계신 구세주의 앞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하셨으나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구세주에 대해서 지녔던 사랑을 가지고 구세주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의 면전에 그대로 있거나 곧 어떤 힘이 나를 그곳으로부터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꿈을 곧 이후로 나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오든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맡겨진 일을 행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구세주와 함께 할 수 있고 꿈에서 느낀 것과 같은 사랑의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목표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엔사인, 1974년 5월, 119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많입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1)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모두가 그렇게 실천할 때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주어진 것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32:726)

아이반 제이 배렛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 교회사 및 교리 담당 부교수로 동 대학 제10스테인드 축복사이다.



#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데이비드 에이치 안 이세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고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으며, 영화로운 부활의 서장을 장식한 마지막 수난주 제5일째 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으며, 한 사람을 만나 주님과 열 두 제자가 유월절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도록 큰 다락방의 사용 문제를 상의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모였을 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눅 22 : 24)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눅 22 : 26)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그와 같은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어린 아이를 예로 들어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아이를 그들 중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 : 3-4)

그러나 바로 그 유월절 날 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눅 22 : 44)되고, 밤새도록 지속된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이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모범이 있기 전날 밤에 주님은 놀라운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 13 : 4-5)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 : 12-15)

이것이야말로 위대성에 대한 이들의 의문을 놀라운 예로 풀이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직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요 13 : 21) 곧 그분은 “한 조각을 찍으려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 : 27)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요 13 : 30)

절박한 상황을 예견한 예수께서는 열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요 13 : 31)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요 13 : 33)

이러한 상황 아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4-35)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익히 알아온 사람이라면 “왜 예



수님은 복음을 전한 초기부터 사랑을 가르쳐 오셨는데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 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함은 물론이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 : 44)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종과 혈루증 환자와 기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써 사랑과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병어리에게 말을 하게 했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으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는 악령을 몰아 치셨고 과부의 았은뱅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무리를 먹이셨으며,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해 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첫째와 둘째되는 계명을 통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 12 : 30-31 참조)

예수께서 제자에게 하신 이 새로운 계명이 다른 계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첫째되는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다른 가르침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첫번째 서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요 1 2 : 7)

다시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요 1 3 : 11)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림이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요 1 2 : 8, 10)

이 성구에서 요한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 중 “옛”과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 : 5)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 19 : 18)는 말씀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제시했듯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분은 “참 빛”이었으며 “새로운 계명”은 “저에게서도 참된 것”이요 “빛”이었습니다. (요1 2:8, 10 참조) 주님은 “참 빛”이었으며 그 계명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스러운 사랑의 모범을 과거에나 현재에나 변함없이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며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 주어져 “새롭게”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옛”과 “새”계명으로서의 의미는 오늘날 복음과 그 일부가 “새롭고”또한 “영원한”(교성 22:1, 132:4) 것으로 말하여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보충적인 의미가 갖든 것으로 풀이해 주고 있으니, 이는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분이 제자에게 새로운 표준을 주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그분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표준으로 인간의 표준을 들지 않고 성스러운 표준인 주님 자신의 표준을 들었습니다.

같은 뜻으로 니파이인 열 두 제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물으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표준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물문경의 예언자의 다음 말씀에서 “새 계명”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인데,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 아멘”(모로 7:47-48)

아들 모로나이를 통해서 준 물문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자비(사랑)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요, 그리스도가 지닌 참된 사랑은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바라셨던 사

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경전은 그리스도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신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는 그분이 제자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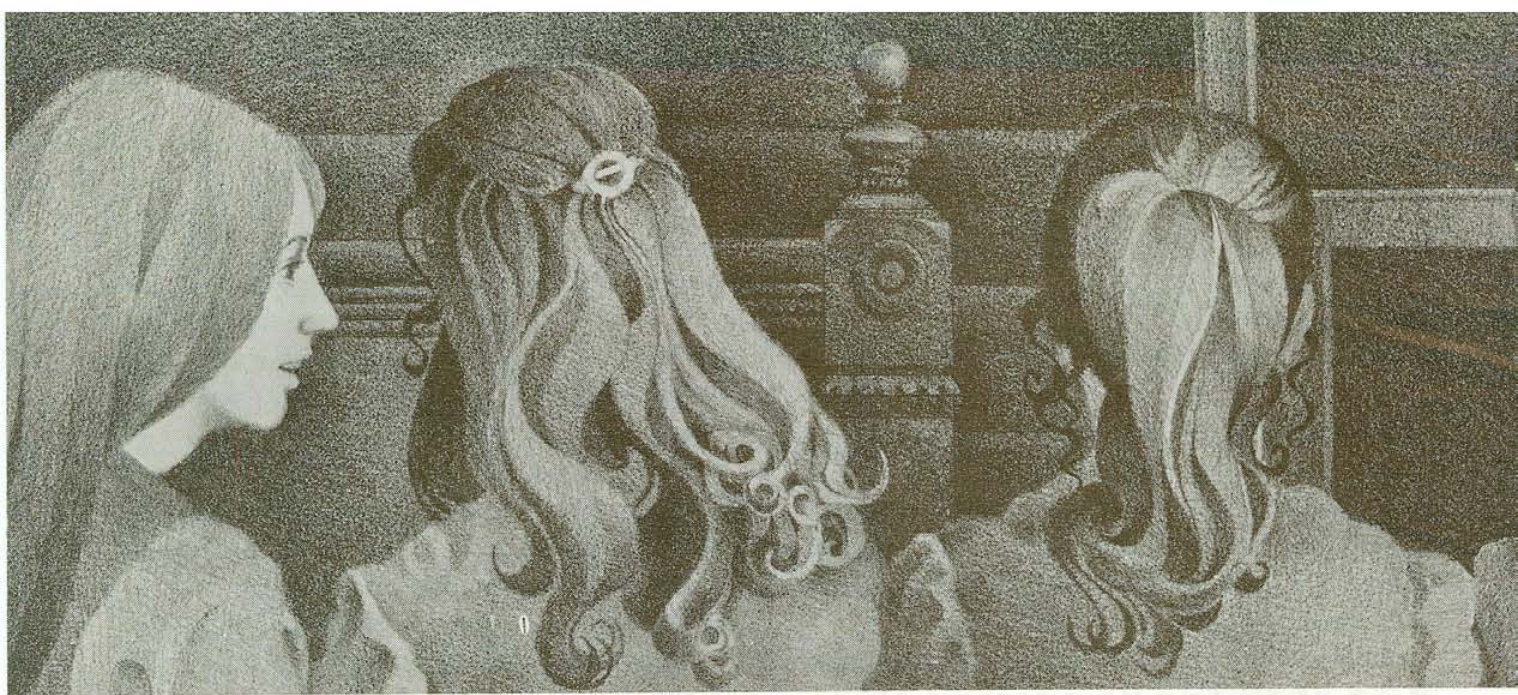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폭넓고 일반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새 계명”을 줄 때는 제자들 중에서 위대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은 그들 중에 있던 가롯 유다가 그날 밤 주님과 그들을 배신하고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기에 말씀하셨던 폭넓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미가 담긴 사랑의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더우기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경전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라는 계명은 회복된 복음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말해 주듯 “옛”것과 “새”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계명”은 인류에게 사랑에 대한 높은 표준을 세워 주었으니, 이는 여기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은 제자로서의 표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편리한 말인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님의 제자라면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초기의 열 두 제자에게 준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사람인 우리도 그의 사랑을 모범으로 지녀 마땅합니다.

메이비드 에이치 안 이세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 철학 교수이며 교회 열기세백 신권 교재 편찬 위원으로, 오렘 유타 사본 스테이크 오렘 제23와드 소속이다.

\* 역자주: 물문경에는 Charity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음.



##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엘레인 에스 맥케이 글  
제임즈 크리스텐슨 그림

**지** 금으로부터 21년 전 4월 나는 처음으로 교회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솔트레이크 테버나클을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웅장한 건물에 놀랐지만 그보다도 그곳에 모인 총관리 직원들의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많은 총관리 직원이 몬타나주에 있는 작은 우리 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를 통해서 대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관리 직원의 방문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들은 남다른 힘과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1년 전 4월 어느날 나는 총관리 직원의 어디에서 그런 남다른 힘이 나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에즈라 배프트 벤슨 장로의 여섯 자녀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나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 나서서 다음 연사를 소개할 때 나는 주의길게 살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벤슨 장로가 마이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주의길게 지켜 보았습니다. 그분은 키가 매우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요, 미국 농림장관으로도 세 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요, 주님의 특별한 사도로, 근엄 성실한 분으로 전세계의 청중에게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에게 기대면서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당황한 나는 이 메시지가 뒤에서부터 전달되어 온 것이니까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벤슨 장로를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말할까, 아니면 ‘자매님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겠어요’라고 말할까를 생각하다가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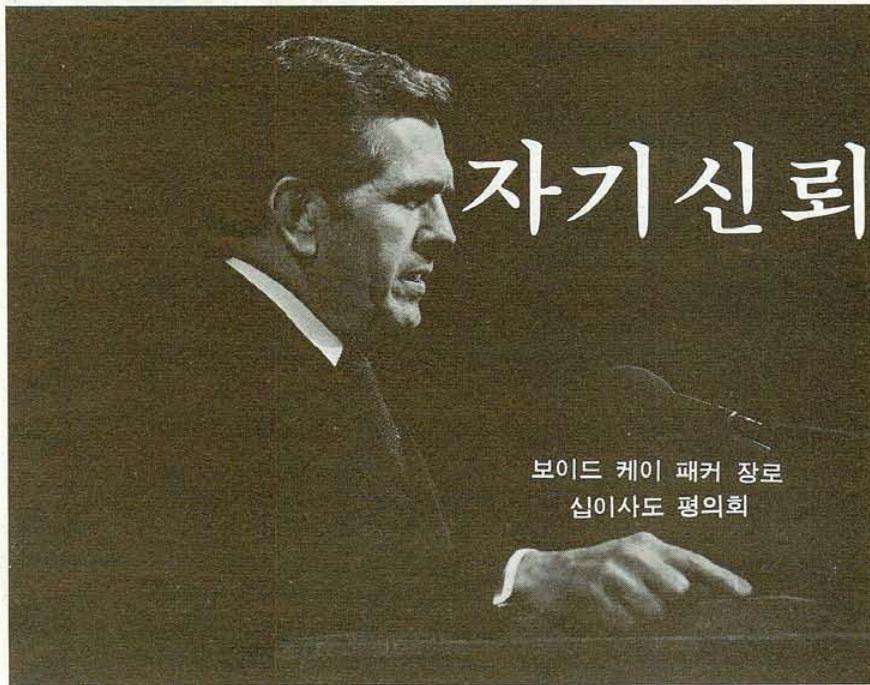
나는 그 전달의 말이 벤슨 자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미 벤슨 자매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수차 가정의 축복사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을 기억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지방부장은 가정 복음 교사이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반 기업의 사무장이 되었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봉급이 줄어 들 때라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

정의 밤에서 권고를 주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들이 선교사에 나가고 딸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찬식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침례를 베풀거나 유아명명식을 하거나 가정의 축복을 주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녁 늦게 피곤하여 귀가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잘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월이 흘러 그간 수많은 대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벤슨 회장님은 말씀을 하셨으며, 나는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21년전 한 대회에서 전달된 그 짧은 메시지가 한 가족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서로 전할 때 그 아버지는 하루의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 큰 힘과 믿음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 자기 신뢰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니다.”(복지 사업 모임, 1974년 10월 5일)

나는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여러 곳에서 이 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뢰의 원리는 행복한 삶의 근본입니다.

자기 신뢰의 원리는 정서적이며 영적인 일에도 적용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교회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복지 제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 나갈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항상 뒤를 받쳐 주고, 밀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자신의 것을 바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서적이고 영적인 자기 신뢰를 잃는다면 물질적으로 남을 의존했다가 이를 잃을 때 보다는 더 큰 힘을 잃고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들에게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회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에게 가지고 가 해결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권고나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도움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때에만 회원은 교회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의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뜻깊은 말씀입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

“전”이라고 알려진 교육 원리가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데 이용해 보고, 다시 이것의 근본 원리를 우리 생활의 일부에 전이시키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복지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 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29)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지난 번 대회에서 그분의 독특하고 간결한 어조로 이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킬 책임이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 3:19)”

복지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최대 한도로 자기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가르치고 강조해야 한다. 어떠한 말일성도라도... 자신을 돌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가 노력만 한다면 전능하신

분의 영감과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 필수품을 얻는 데 어려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일성도의 마음속에 그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고 다음에 생활 필수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복리를 돌보도록 하라는 뜻을 심어 주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회원은 가족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끝으로 교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1936년 교회가 처음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울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의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보고, 1936년 10월)

롬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돌봐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해 준다고 보다는 해를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교회 복지의 목적은 교회 회원이 자기 자신을 돌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

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7-9)

여러분은 경전을 읽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자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경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도자들이 회원에게 교회에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 개인적인 노력과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하도록 부탁하지 않고 권고나 충고를 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학생이 사무실로 나를 찾아 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충고를 들으러 왔나?” 하고 물었습니다.

“네” 하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충고를 주면 그대로 따르겠나?”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말이었나 봅니다. 결국 그는 “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교회의 한 축복사인 훌륭한 그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권고란다. 이번 주말에 집엘 내려가거라. 아버지를 만나 조용한 곳에 가서 네 문제를 말씀드리고, 조언을 들어 보도록 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 이게 내가 주는 권고란다.”

나는 아무런 명목없이 주는 정신적인 부조행위가 명목없는 물질적 부조행위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도움을 줄 때 의타심이 강해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든 와드와 지부에는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나 결코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 만성병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잠기와와도 같아 다른 어느 질병보다도 인간에게서 많은 힘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영적인 힘을 앗아가는 “권고라는 유행성 질병”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신뢰는 교회의

지주가 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다는 계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재빨리 대답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여러분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가 여러분의 정서적, 영적인 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독립심, 근면, 검약, 자기 존중의 정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을 생활의 지배 원리로 생각하며, 영적인 보조 행위의 악이 퇴치되어야 하고,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가지 원리와 제언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회원이 먼저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다시 가족에게서 온갖 도움을 구했다면 복지 지원을 받는 것에 조금도 미안함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도움을 찾은 후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같으심이라. 또한 인간이 타락한 때로부터 길이 준비되었으며 구원 온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니라.”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니파이 이서 2:4-5)

여러분은 이미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본래부터 천성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난 못해, 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끈기와 용기와 놀라운 힘을 간구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강력한 도움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남은 일은 쉬워집니다.

스टे이크 부장이나 지부장이나 감독이나 기타 총관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려 오는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쁜 일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끌려 그러한 결정을 비준받으러 찾아 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해결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문제에 관해 기도도 하십시오. 주요한 결정은 남이 내릴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통찰력을 발휘하십시오. 예언자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 29:18)

문제를 매일 조금씩 생각해 보고 순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면 주요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면 초기에 이를 수습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주요한 결정이 여러분을 당황하게도 하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서 결과를 기다린다면 도중에 장애되는 일에도 큰 해를 입지는 않게 됩니다.

주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육신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이 생각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때입니다.

나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께서 계시와 관련하여 “아침 일찌기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이른 아침 정신이 맑고 밝은 때를 이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잡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의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교성 88 : 124)

나는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밤 늦게 앉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이 사업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른 아침을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계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시에 관해서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은 “언제 제가 계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받아 실수없이 일을 처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하십니까? 아니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문제가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께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마음속으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다면 다음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어리석게도 감독이나 지부장이나 주님께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한다면 그 결정에서 자기 신뢰나 순종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매년 여러분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흔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지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양식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기도하였다고 가정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큰 관심을 갖고 보시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집을 짓기로 하였다면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정직하게 사고 정당하게 값을 치루고 주님의 방법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사를 가서는 합당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기꺼이 승인해 주신다는 점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데도 죄책감을 느끼고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따를수록 우리는 보다 영적으로 자기 신뢰를 갖게 되고 보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심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 31-32)

레이먼과 레뮤엘은 니파이에게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보라 우리는 부친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이에 니파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라”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니이 15 : 7-11 참조)

결론으로, 만일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의 영이나 힘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고 강력한 도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분주하게 찾아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타인의 영역에 관한 일로 계시를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곧 무질서 속에 빠지며, 그러한 계시가 잘못된 원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독에게 충고를 하거나 교회 지도자의 잘못을 고칠 계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나 기도의 응답에 너무 의존하거나 불안해 한다면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간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 여러분은 내가 지금 말하듯 나는 하나님을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께 가서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고 모든 원천을 활용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예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문기가 두렵습니까?

린다 아치발드

**정** 말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와 복음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말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사정은 정말 달랐습니다. 친구인 바바라가 오늘날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데이브가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신경이 곤두섰으며, 손에 땀이 났고, 혀는 물론 온통 근육의 힘이 모두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홍차나 커피를 하지 않고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내가 말일성도인지 압니다. 그러나 난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브와 바바라가 그들의 이론을 내세웠을 때 나는 불안에 싸여 칩묵을 지켰고 이십전십의 방법이 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런 느낌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노력이 없이 천부적인 소질로 성공을 거둔 선교사는 극히 드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난 선교사 그룹과 실패한 선교사 그룹 사이에는 나처럼 처음에는 몹시 두려워 하였으나 노력을 통해 성공한 선교사 그룹이 있습니다. 켄킨스 자매, 클라크 형제, 제인, 미첼, 톰, 그리고 베이커 감독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기꺼이 나에게 그들의 비결을 알려 주었습니다.

켄킨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성취도 있게 됩니다.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매님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매님에게는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요”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미첼은 고집이나 속된 면이 없는 매력적이고 자신에 찬 자매입니다.

“전 전에는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라고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난 나 자신에 불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뚱뚱했고, 내가 입은 옷은 유행이 지난 것이었고, 머릿도 너무 길어서 주체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대학 친구 하나가 나의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나는 체중도 줄였고, 유행에 맞으나 교회 표준에도 어긋나지 않는 옷을 마춰 입었고 머릿도 내 의외에 어울리게 멋지게 손질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큰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었죠. 자신을 좋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클라크 형제는 인기가 좋은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공부하십시오.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열쇠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없음은 명백한 일입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경전과 교회 서적을 공부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의 교리도 알아 보았고 주변 사람의 요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공부 덕분에 간증이 커졌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식이 신앙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선교 사업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자신을 갖게 되니 친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거나 구실을 대지 마십시오.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얼마동안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었으며 결국 선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십시오”라고 제인이 강조했습니다.

톰은 제인이 말한 비결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천성이 타고난 선교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선교사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위선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선교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시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끝으로 나는 베이커 감독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나도 한때는 무척이나 두려워했었습니다. 나는 적절한 시간과 말을 고르지 못할 것이 두려워 선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 뿐이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성령에 귀를 기울여 복음을 전해도 좋은 시간인지, 내 말이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종교 문제를 토론하지 말도록 영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연관시킨 이들 훌륭한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나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켄킨스 자매의 말은 옳았습니다. 나에게서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큰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내 모습에 만족한다고 느꼈지만, 새 구두를 사 신고 낀 안경은 금메 안경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더욱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시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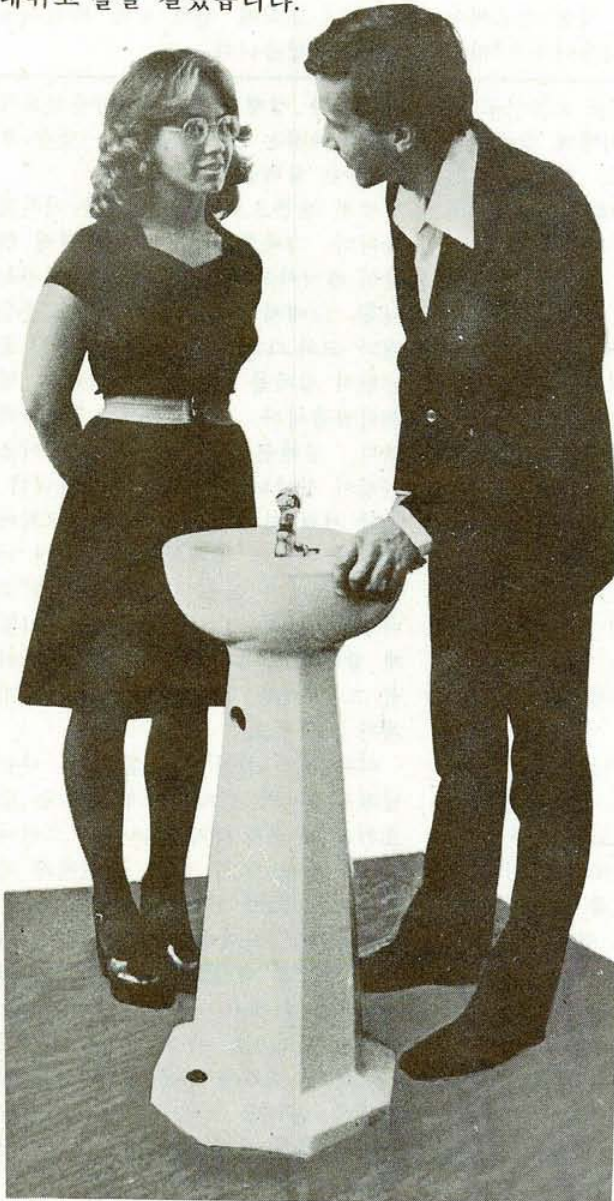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뇌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내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바라가 곧 잘 들먹이던 주제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무용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준비를 했지만 강한 의지력도 동원해야 했습니다. 불안, 땀을 쥐게 하던 손, 긴장된 근육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기 보다는 흥분되었으며 혀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느낌이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 흥분된 회열에서 온 것인지를 물랐습니다. 어쨌든 그 증상은 같았습

나는 음료수대 앞에서 데이브를 만났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거절하진 않을까?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을 걸었습니다.



니다.

“바바라, 난 네가 종교에 반대의 입장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만일 네가 구세주가 그러한 종교의 머리되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래도 네 생각에는 변함이 없겠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글쎄, 난 내가 물몬이라는 걸 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상에 오셔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를 조직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 보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더 알고 싶진 않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야. 단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단다. 그들에게는 너무도 새로운 생각이야. 그렇지만 나는 구세주께서 오늘날 지상에 그의 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 와서 공부해 보면 알 수 있게 돼.”

“미안하지만 난 흥미가 없다.”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 나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영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라.”

데이브가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매우 기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종교 토론에 기꺼이 참여했으므로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지만 계속 침묵만 지켰습니다. “...선교사인 것처럼 행동하라”하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음료수대 앞에서 데이브를 만났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거절하진 않을까?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을 걸었습니다.

“데이브, 오래 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종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말야. 왜 종교 문제를 생각해게 되었니?”

“난 인생에서 최대의 행복을 얻고 싶었어. 그런데 종교가 그 길을 제시해 줄 것 같거든”

“물론을 본 적이 있니? 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래, 난 네가 물몬인 걸 알아. 모두가 너와 같다면 그 말도 사실이지.”

나는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아 내심으로 몹시 기뻐했습니다.

“데이브, 우리는 오늘날에도 모세나 아브라함, 이사와 같은 예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우리는 그분의 권고를 따를 때 참으로 구세주를 따른다는 것을 알아. 이 위대한 메시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지 않니?” 나의 가슴은 2,3초 간격으로 뛰었습니다.

“그래, 알고 싶어. 사실 난 네가 믿는 종교에 관심이 많았으나 네게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해 포기 상태에 있었어. 왜 나에게 묻지 않았니?”

린다 아치발드 자매는 가정 주부요 자유 기고가로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스테이크 제2와드 청년회장, 상호부조회 사회 관계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 물몬일지

## 어름 호수를 깨고 받은 침례

아이나 노르트란더  
스웨덴 케테보르그

1904년 추운 겨울 어느날, 두 선교사가 나의 외조모인 크리스티나 보린이 살고 있던 시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불빛을 보고 “저곳에 가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으며, 그들은 작은 오두막집과 많은 어린

아이들을 보고는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조모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을 묵고는 다음날 소책자를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외조모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1905년 1월에 선교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외조모에게 소책자를 읽은 소감을 물었습니다. 외조모는 모든 말씀이 옳으며 침례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침례받을 물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웃에 큰 호수가 있어요. 광에 가면 도끼와 톱도 있어요. 톱으로 얼음을 갈라 침례를 줄 수 있잖아요”

장로들은 두절계 언 호수의 얼음을 톱으로 가르고 큰 구멍을 내어 할머니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조모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5분정도라면 언제나 낼 수 있습니다.

레카 올슨  
덴마크 코펜하겐

“5분 정도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 선교사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 순간 다음과 같은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네가 이웃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자신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 언제라도 5분 정도는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안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흥미를 불러 일으켰으며, 두 번째 방문 때는 그들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그들과 베타셋 차례 만나게 되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그만 두지 않으면 나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욕박질렀습니다.

그해 여름에 우리는 오스트리아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나는 이때 종교를 잊으려고 했으나 이를 쉽게 버릴 수 없었으며, 곧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그 선교사들이 전한 메시지

가 옳은지 그른지 기도해 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료. 그렇게 결정을 내고 다시는 그 종교 얘기는 그만 두시다.”

나는 사흘간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간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으며,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지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시간 후에 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 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방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들은 나에게 그들이 그날 어느 여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중에 그녀에게 할 이야기를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서 그들은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약속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들은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밖에서 놀던 아들이 달려가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거절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주

저했으나 성령이 강하게 방문하도록 지시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열흘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멋진 결론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쯤 해서 종관리 역원 한 분이 덴마크어를 방문했는데 선교사는 나를 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내가 교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면 곧 남편이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실수하셨지. 남편은 절대로 교회엔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부장님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느끼신 그 사랑을 가정에 제신 남편에게 가져 가십시오.”

나는 약간 화가 났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으므로 그런 권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남편에게 친절하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내 변한 태도를 남편은 이상한 듯 보았으며, 아 이들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진지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남편과 8살된 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 보았습니다.



## 그대가 기꺼이 행할때

폴 에이치 던 장로

나는 세 살 때부터 직업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준비해 왔으며, 한시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목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학교나 교회가 내가 야구 선수가 되는 데는 별로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12년 동안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집에 가지고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나는 후회를 하게 되었고, 회개를 하려고 노력했으며, 몇 년 전의 어리석은 나의 논리로 생긴 공백의 대가를 나머지 생애 동안 치루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그 시절에 나는 내가 유명한 선수가 되는데 학교 공부가 무슨 상관인 있어? 수학이나 영어를 못해도 멋진 커브 볼을 던질 순 있잖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으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준비하고 있던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멀리 볼을 던질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으며, 볼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이제 나는 그때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갈 시간이 되면 나

는 교회가 나를 대선수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개인의 발전에 대한 방해밖엔 안된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대선수나 유명한 범플가나,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찌기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18살 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나는 근 15년 동안이나 내가 바라는 이상을 이루고자 계획해 왔습니다. 나는 여덟 개의 큰 리그 야구단으로부터 입단 요청을 받았으며, 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첫 계약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서명하였습니다. 십대의 소년에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구단과 계약을 맺고 새 유니폼에 새 번호를 달고 시험에 나섰습니다. 그때의 흥분

된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세 살 때 나는 이차 대전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계획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18살이 되면 3년간의 군복무 소집 영장을 받아 야구 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곧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았습다. 그때 매우 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냈어야 할 기본 지식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학교 시절에 소홀히 했던 다른 많은 것들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막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11개월이 지난 후 나는 태평양의 함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섬으로 향하는 수송선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그 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전투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의 항해 기간에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매일 저녁 5시에 예배를 보았는데, 유대교인이건 카톨릭이건 이방인이건 말일성도건 모두 공동 찬송을 불렀습니다. 군목이 4,5분 정도의 설교를 하였고, 그 후에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이들의 화제가 되는 고향, 여자, 기타 여러 가지를 주고 받고는 헤어졌습니다. 매일 5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가 계속 되었습니다. 3,000명의 군인 중에서 매일 집회에 나오는 군인 수는 불과 35명내지 40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스테이크, 와드, 주변의 여건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항해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보았습니다. 정규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갑판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값진 인생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944년 7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3,000명이 인생의 승고한 가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인이든, 범죄자든, 야구 선수든 모두 보다 높은 조력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신교 목사님이 인도한 그 예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군목은 진지하였으며 간결하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들은 갑판 위에서 입을 모아 “낮도 다잔 이 저녁에”를 불렀습니다. 3,000명 거의가 다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불러 본 이 대합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합창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다른 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어 메아리쳐 울 것 같지 않습니까? 간단한 개회 기도가 있었으며, 군목은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밤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이 행할 내일 아침과 같은 공격에서는 많은 생명이 희생됩니다. 우리는 섬을 탈환하기 위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통계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의 반이 내일 아침 8시가 되기 전

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중의 반수가 내일 아침 8시에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시 18살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당신은 내일 아침 8시에 창조주 앞에 서서 당신의 지상 생활과 태도와 활동을 고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곳에 앉아서 찬란했던 야구 선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일인가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계약, 명성, 행운...이 모든 것이 인생의 근본되는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너무도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나는 종교의 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실까? 왜 나는 전쟁에 나와 있을까? 왜 나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죽여야 하나? 그와 같은 수많은 질문이 머리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었습니다. 왜? 왜? 우리가 지금 물어 보아야 할 질문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각 소리에 맞추어 우리는 상륙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작은 산호 초섬에 상륙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까지 찬 물을 헤치며 양손으로는 총을 받쳐 들고 그 동안 함께 훈련을 받고 사귀어 오던 친구들의 시체를 밟면서 상륙하였습니다. 왜 19살밖에 안된 젊은이들이 고개를 물속에 박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간구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나의 부친께서는 그 지역에서는 매우 유능한 사업가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청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으나 겸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권고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늘

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광도에 도착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운명의 날 해안에 상륙할 때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나의 부친께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방공호를 파면서, 부친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부친의 인도와 가르침에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빛 발치는 격전중에 나는 철모를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단히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정말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세주입니까? 내가 평생 동안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요셉 스미스가 정말로 예언자입니까?” 곧 응답이 왔습니다. 마음속에서 확신이 섰습니다. 성령이 나의 영을 깨우고 조용히 “그렇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받은 확신은 너무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나는 땅구덩이에서 일어나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전이 깃들었습니다.

“참뚱”(모로 10:4)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간증을 얻을 수 있었읍니다. 나는 가족과 교회의 요구에 못이겨 뜻없는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정말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 거기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은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내 생활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 교회가 참되며,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단 한 가지의 간증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았읍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군대 보험 수당으로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교에서 세운 신학교를 다녔고 그들의 목사라 함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론 교회가 이 세

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모로나이의 말대로 내가 간구하였을 때 간증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수년간 실험해 보게 된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참됩니다. 내 말씀이 옳은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간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군에 가기 직전에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신권 소유자의 권능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영적인 은사와 기회와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밝혀져 우리가 이에 따라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내가 오랫동안 살게 되며, 아내와 가족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복문에서 처럼 “그대가 기꺼이 행할 때”라는 조건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플 형제여, 그대가 기꺼이 행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한 구절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항해가 시작되어 샌프란시스코를 떠날 때 우리 전투 대원은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살아 남아 귀향한 사람은 단 6명뿐이었습니다. 6명 중 5명은 심한 부상을 두 번 이상 당했습니다. 적의 손에서 세상을 하직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우리 분대가 적의 배치와 보급소와 탄약고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탐색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귀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대를 떠나 적지대까지 잠입하여 그들의 배치 현황, 탄약고 위치를 파악해 지도에 그려 넣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지가 적에게 넘어가 적이 우리의 지역을 완전히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간 언덕을 우리는 아군의

진영으로 생각하고 언덕을 돌아 계곡으로 가서 땅 속에 호를 파고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이 우리쪽으로 이동해 오므로 우리가 있는 지역이 격전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 밤이 되기 전에 그곳을 빠져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명은 그곳에 모여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50내지 400미터 전방에 우리의 진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려움을 본 동료의 소리를 친다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겠다고 소리치려 했으나 탈출 계획이 끝나는 대로 그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논의한 끝에 우리 중 몇 명이 희생당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황혼이 질 무렵 팀을 지어 탈출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몇명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모두들 조용히 앉아 긴 명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을 정도로는 어둡고 앞길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밝은 시간인 6시 15분에 이 일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도주하는 동안 충분한 엄호 사격을 가해 줄 것을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 버렸습니다. 총, 탄약, 수류탄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무기를 모두 분해해 버렸습니다. 다시 모두 모였을 때 한 친구가 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곧 누가 죽게 되고 누가 살아 남을지 모르므로 마지막으로 서로 가족에게 부탁의 말들을 전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항상 축복사의 축복문을 가지고 다녔는데, 6시 5분에 다시 그것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플 형제여, 그대가 기꺼이 행한다면 오래 살아 커다란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리라”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직접 처해 보시기 전에는 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6시 15분이 되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굳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11명이 것처럼 빨리 달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너 명이 기관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나와 친했던 한 친구는 기관총에 몸이 들로 잘리워졌습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뛰던 걸음을 멈췄으나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길은 미끄러웠고 진흙 투성이였으며,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진흙 위에서 뛸 때는 쉽사리 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주위에서 튀는 진흙을 보고 나에게 기관총을 겨누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안 나는 이리저리로 방향을 잡으며 달렸습니다. 내가 자리를 피하는 순간 그곳에 기관총 알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나는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와 5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총알이 오른쪽 발뭇꿈치를 스치고 지나 갔습니다. 군화가 벗겨져 달아났고 나는 몸을 낮추어 땅에 주저 앉았습니다. 몸을 숙이고 앉았을 때 총알이 등으로 날라와 메고 있던 수통, 탄약 주머니와 벨트를 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리려 하자 총알이 날라와 철모 오른쪽을 때려 철모를 들로 조각을 내 버렸습니다. 다시 나는 일어나 달렸는데 이번에는 어깨 위를 살짝 지나갔습니다. 나는 또 다시 일어나 엉망이 된 모습을 하고, 나를 지켜 보며 손을 내민 하사의 팔에 안기듯 쓰러졌습니다. 그는 내가 구덩이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지켜 보았습니다. “플, 자네 정말 행운아야”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 날 따라와” 하고는 낮은 포복을 하였는데, 나는 첫 100미터를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운이라고요? 무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수없이 경험을 하였으니까요. 2년의 전투 경험에서 그와 같은 일은 수 없이 겪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젊은이들은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으므로 이 인생에서의 상태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부활의 날에

부산 선교부장 한 인상

어제도 지나고 또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접한  
시온의 역군.

틀걸처럼 밀려와서  
점점이 흩어져 가는, 점점이-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누구요?

사망의 쏘는 고통은  
꼭 그것이 죽음을 입은자에게만  
안겨지지는 않는다.

“잘가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설혹 그런 언어를 뿌린다 하여-  
(아니 그럴수는 없다)

가슴을 에는 회한과  
몸 부림을 동반한 다시 만남에의  
바람의 절규가 없는 것이냐?

(작별하지 말아야)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의 헤어짐  
영의 죽음은, 영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것으로 부터의 떨어져 나감이다.  
그리하여 쏘는 듯한 고통을 씹으며 살았다.

영원히 속박할 수 있으리라던  
악마의 그 죽음을 사슬이  
벗겨지던 날

무덤과 사망과 고통을 딛고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 나신줄 모르던

그리하여 돌 무덤 앞에 나와,  
막달라 마리아여!  
통곡하던 막달라 마리아여!

이웃이여! 친구여!  
형제 자매여!  
주님은 다시 사셨다.  
무덤을 깨쳐 사망의 사슬을 푸시고  
우뚝 일어서서 부활의 문을 여시었다.

어제는 묻어 버리세 어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세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순간 순간들. 그 영원갈던 순간들을.

교만과 질시와 또 가증함으로하여  
어쩌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지루했던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관의 그리스도  
선혈을 뿌리며 신음하시던 주  
그렇게 너와 나의 죄값과 아픔을  
주가 대신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곳으로만 돌아가려는 게야?  
그 영원같은, 몸부림 쳐야 하는 곳으로

주는 다시 사셨다. 일어 서시었다.  
지나야 했던 음험한 사망의  
골짜기 그 험했던 긴길,  
그러나 달려 가야할 승영에로의 길은  
더욱 빛나지 않는다.

악마에게 속한 것들일랑  
그대로 던져두고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 되느니라)  
이 빛나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세  
외의 갑옷을 입고  
선한 부활의 틈에 참여하세.



